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 분석

2017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김 언 나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 분석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김 언 나

인 준 서

김언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사회는 개인의 차별화된 개성과 창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그로테스크는 평범한 것에 대해 무감각한 현대인들에게 시각적 충격을 유발하고 사회전반에 만연한 심리적 부조화와 소외현상 등 현대사회의 현안 문제점들이 드러나도록 하며, 패션, 미술, 영화, 음악, 건축, 메이크업 등 다양한 문화에 영향을 주어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대한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의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도출하여 메이크업 요소를 분석하고자한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1969~2010)의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요목을 그로테스크 특성 4가지 부조화성, 해학성, 과장과 극단성, 비정상성으로 나누었다. 사진 선정기간은 1995년 패션쇼부터 2016년까지 240장의 사진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알렉산더 맥퀸이 1995년~2001년 지방시브랜드에서의 수석디자이너로 활동한 시절과, 2002년~2009년 본인만의 브랜드를 시작한 시절, 알렉산더 맥퀸의 사후 2010년~2016년까지의 사진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 메이크업에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이 나타나며, 특성에 맞는 사진을 도출하여, 사진을 눈, 눈썹, 입술, 얼굴 요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요목들에 관한 상관관계와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상관관계, 기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메이크업 요소를 그로테스크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눈썹메이크업에서는 그로테스크 특성 중 해학성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비정상성, 부조화성, 과장과 극단성 순이었으며, 눈에서는 과장과 극단성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비정상성, 해학성, 부조화성순으로 나타났다. 입술에서는 부조화성이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성, 과장과 극단성, 해학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얼굴은 해학성이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성, 과장과 극단성, 부조화성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눈썹메이크업을 전체의 I, II, III 기간별로 분류하였을 때, I기에서 눈썹의 그로테스크 특성은 해학성(12.9%)로 가장 높았고, II기는 부조화성이, III기는 비정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5$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눈썹 메이크업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눈 메이크업을 기간별로 분류한 결과, I기의 시기는 비정상성이 가장 높았고, II기와 III기는 과장과 극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1$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눈 메이크업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술 메이크업을 기간별로 분류한 결과, I, II, III기가 부조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5$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입술메이크업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얼굴메이크업을 기간별로 분류 한 결과, I, II, III기 모두 해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5$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얼굴메이크업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을 때, 눈썹과 눈, 입술, 얼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눈썹과 얼굴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고, 눈은 얼굴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입술은 눈썹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의상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에서도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결합들은 예측 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들어 내며 그로테스크 특성을 가진 메이크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그로테스크	3
2. 패션쇼 메이크업	15
3. 알렉산더 맥퀸	20
III. 알렉산더 맥퀸의 그로테스크 내용 분석 연구	24
1.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24
2. 그로테스크 특성종류 및 요소분석 요목과 분석단위	28
3.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의 요목에 따른 신뢰도	35
IV. 연구결과 및 논의	37
1. 연도별 전체 특성별 메이크업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	37
2. 연도별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39
3. 상관관계 분석	47
V. 결론	48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	6
<표 2> 연도별 연구대상	25
<표 3> 그로테스크 특성에 따른 메이크업 분석요목	29
<표 4> 눈썹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종류	31
<표 5> 눈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종류	32
<표 6> 입술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종류	33
<표 7> 얼굴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종류	34
<표 8> 3인의 상호간의 일치도 예	35
<표 9> 분석요목의 종류와 종합적 신뢰도의 값	36
<표 10> 연도별 빈도 분석	37
<표 11> 분석요목별 빈도 분석	38
<표 12> 기간별 눈썹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39
<표 13> 기간별 눈썹 그로테스크 교차 분석	40
<표 14> 기간별 눈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41
<표 15> 기간별 눈 그로테스크 교차 분석	42
<표 16> 기간별 입술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43
<표 17> 기간별 입술 그로테스크 교차 분석	44
<표 18> 기간별 얼굴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45
<표 19> 기간별 얼굴 그로테스크 교차 분석	46
<표 20> 각 요목별 상관관계 분석	47

그림 목 차

<그림 1> 2004 F/W Paris comme des Garcons	8
<그림 2> 2007 S/S Paris comme des Garcons	8
<그림 3> 2018 S/S New York Topman	8
<그림 4> 2016 S/S New York Thom Browne	8
<그림 5> 2004 S/S Paris John Galliano	10
<그림 6> 2009 S/S Paris John Galliano	10
<그림 7> 2007 S/S Paris Christian Dior	10
<그림 8> 2016 S/S London Vivienne Westwood	10
<그림 9> 2011 F/W Paris Christian Dior	12
<그림 10> 2004 S/S Paris Christian Dior	12
<그림 11> 2008 S/S Paris Christian Dior	12
<그림 12> 2008 F/W Paris Christian Dior	12
<그림 13> 2003 S/S Paris John Galliano	14
<그림 14> 2017 F/W Paris Gareth Pugh	14
<그림 15> 2015 F/W London Gareth Pugh	14
<그림 16> 2016 S/S London Gareth Pugh	14
<그림 17> Alexander Mcqueen 고스 패션화보 I	23
<그림 18> Alexander Mcqueen 고스 패션화보 II	23
<그림 19> Alexander Mcqueen 2014 F/W 패션화보	23
<그림 20> Alexander Mcqueen 2014 S/S 패션화보	23

I. 서론

현대 사회는 개인의 차별화된 개성과 창의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확대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미 개념은 과거의 이분법적이고 획일화 된 미적 가치 기준을 탈피하였고 다양하고 폭 넓게 확대 되었다. 미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혐오스러운 것 또한 미의 한 범주로 포함되어 예술양식과 함께 전개되었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조형적 특징과 미적가치의 다원화를 보이며 꾸준히 나타났다.¹⁾

특히 그로테스크의 메이크업은 현대인들의 미적 가치의 다원화에 힘입어 과장되고 극단적이며 기괴하고 섬뜩한 이미지로 현대인의 미의식 범주에 포함되어 예술양식과 함께 전개되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조형적 특징과 미적 가치의 변화를 보이며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²⁾ 그로테스크는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에 의해서 평범한 이미지보다는 과장되고 변형되며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것이 패션쇼나 메이크업 광고에 차용되어 보편적 개념을 지키는 메이크업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³⁾

그로테스크 특성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웃음과 공포,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이라는 양면성과 동시성을 지닌 채 패션에 있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게 하는데, 패션계의 악동 또는 세기말적인 트렌드의 선두자주로 불리는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은 이러한 그로테스크 표현은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⁴⁾

1) 김선영(2008),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의 그로테스크적 특성, 복식, 58(8), pp.106~119.

2) 이선화(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복식, 61(5), pp.34~47.

3) Ibid.

4) 김선영(2008), op.cit., pp.106~119.

그로테스크에 대한 선행연구는 장미숙, 양숙희(2000)⁵⁾, 박은경(2003)⁶⁾, 박혜경(2011)⁷⁾이 있는데 그로테스크의 패션 중심을 논하고 있으나, 얼굴 메이크업을 통해 분석하거나 최근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 내적의미를 도출하고 있는 논문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로테스크적인 특성을 현대메이크업에 적용했을 때 그 특성을 부조화성, 해학성, 과장과 극단성, 비정상성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한 표출 현상을 메이크업에 적용시켰다. 본 연구의 방법은 그로테스크에 관한 미학 서적,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그로테스크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로테스크 특성이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의 메이크업에 적용됐을 때 표출된 표면적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의 범위를 1995년~2016년 레디 투 웨어 패션쇼 중심으로 패션 인터넷 사이트 Vogue, Livingly, VOGUE Korea에서 발췌하였다. 분석의 요목으로는 눈썹, 눈, 입술, 얼굴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 기간을 I기, II기, III기 총 240장의 사진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한다. 수집한 이미지의 정확한 분석과 타당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메이크업 전문가 3인에 의해 이미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로테스크의 대한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의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도출하여 메이크업 요소에 따른 서로의 상관관계와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5) 장미숙, 양숙희(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메이크업 광고와 컬렉션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3) pp.436~449.

6) 박은경(2003),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10), pp.85~100.

7) 박혜경(20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광기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Ⅱ. 이론적 배경

1. 그로테스크

1) 그로테스크 개념

그로테스크의 개념으로는 서구 로마문화 초기의 기독교 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술양식으로, 하나의 그림 속에 인간적 요소와 동물과 식물적 요소들이 정교하게 얽혀 결합되어 나타난 무시무시하거나 끔찍한 장식미술을 의미한다.⁸⁾

문학과 예술에서 고전주의적 규범이 우세했던 17C~18C 중엽까지 그로테스크는 시대의 대문학과 유리되어 하부의 코미디로 전락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그로테스크는 캐리커처와 관련됨으로써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게 되어 부자연스러운, 우스꽝스러운,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 경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대에 그로테스크는 그것의 진지한 특징을 강조하는 작가들에 의해 예술개념, 미학적 범주로 발전되었다.⁹⁾

20세기에 이르러 독일 비평가 카이저(Wolfgang Kayser, 1906~1960)가 「예술과 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를 출간함으로써 그로테스크는 미학적 분석과 비평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는데,¹⁰⁾ 카이저는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적대적이고 낯설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소외된 세계의 표현이고, 예술가는 존재의 깊은 부조리들과 반쯤은 우스개

8) Philip Thomson, 김영무 역(1987), *The Grotesque*,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p.17.

9) 박은경(2003), op.cit., pp.85~100.

10) Philip Thomson, 김영무 역(1987), op.cit., p.14.

로 반쯤은 겁에 질려 장난을 한다고 하여 그로테스크의 양면성과 정신적 소외 공포를 유발하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¹¹⁾

일반적으로 그로테스크 형태의 분리된 영역은 혼합 속에서 정적인 것의 파괴, 동일성상실, 자연스러운 균형파괴, 물질계의 붕괴, 질서해체, 개성적 개념파괴, 역사적 순리의 분열 등에서 엿볼 수 있다.¹²⁾

2) 그로테스크 선행연구

그로테스크의 정의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특성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¹³⁾

장미숙, 양숙희(2000)¹⁴⁾는 1990년대 후반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을 고찰하였으며, 그로테스크 특성을 부조화성, 비정상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로 나타냈다.

박은경(2003)¹⁵⁾은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신체담론과 연관시켜 시대별로 정리하고 예술에 표현된 그로테스크를 살펴본 뒤,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시대별로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로테스크를 우스꽝스러운, 부자연스러운,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으로 경멸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김선영(2008)¹⁶⁾은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미적특성은 악마성, 혐오성, 유희성, 이질성으로 나타났다.

신용준(2008)¹⁷⁾은 필립 톰슨의 저서 「그로테스크」를 바탕으로 그로테스크

11) 김선영(2008), op.cit., pp.106~119.

12) Philip Thomson, 김영무 역(1987), op.cit., p.6.

13) 박슬기(2007), 그로테스크 미학의 존재론적 기반과 의의, 인문과학논총 58, pp.179~203.

14) 장미숙, 양숙희(2000), op.cit., pp.436~449.

15) 박은경(2003), op.cit., 41(10), pp.85~100.

16) 김선영(2008), op.cit., pp.106~119.

를 정의하고 그에 합치되는 그로테스크 예술의 사례를 중세-근대-현대에 걸쳐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그로테스크적 장면 묘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으로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선화(2011)¹⁸⁾은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오늘날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고찰하고 내적 의미를 도출해 내는 목적을 가졌다. 그로테스크의 특성으로는 공포성, 비정상성, 유희성, 부조화성으로 나타냈다.

이현진(2014)¹⁹⁾은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미국 초현실주의 작가 크리스 쿡시(Kris Kuksi, 1973)의 작품을 필립툼슨의 그로테스크 정의에 따라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적으로 작품을 분석하여 크리스 쿡시의 작품을 모티브로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한명순(2015)²⁰⁾ 그로테스크한 내용과 표현으로 극중 인물들을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팀 버튼(Tim Burton, 1958) 감독 영화 중에서 오랫동안 팀 버튼과 함께 한 배우 조니 뎀이 출연한 영화 6편을 선정하여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을 부조화성, 비정상성, 해학성, 공포성으로 정의 내려 그로테스크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1).

이러한 선행 논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부조화성, 해학성, 과장과 극단성, 비정상성 4가지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17) 신용준(2008), 그로테스크 아트퍼니처에 관한 연구-기형(畸形)적 형태의 아트퍼니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5.

18) 이선화(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복식, 61(5), pp.34-47.

19) 이현진(2014), 크리스 쿡시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20.

20) 한명순(2015), 팀 버튼 영화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메이크업 특성 연구, 동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2-43.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

선행연구	특성	연구자
장미숙 양숙희(2000)	부조화성· 비정상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부조화성 해학성 과장과극단성 비정상성
박은경(2003)	우스꽝스러운· 부자연스러운·부조리· 자연의 왜곡	
김선영(2008)	악마성· 혐오성· 유희성· 이질성	
신용준(2008)	부조화·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	
이선화(2011)	공포성· 비정상성· 유희성· 부조화성	
이현진(2014)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성	
한명순(2015)	부조화성· 비정상성· 해학성· 공포성	

3) 그로테스크 특성

(1) 부조화성

그로테스크에서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부조화이다.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로 부조화는 그로테스크의 가장 유별난 특성으로 갈등, 충돌, 이질적 혼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의 융합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그림 1),(그림 2).²¹⁾

또한,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그림 3>과 <그림 4> 같이 여성과 남성의 모호한 표현 등과 같이 충돌, 갈등, 상호 모순되는 것들의 조합, 이질적인 것의 결합에 의한 불균형에 원인을 둔다.²²⁾

왜곡이나 불일치, 과장과 어리둥절하게 함, 패러독스와 비이성적인 것을 사용하는 그로테스크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조리를 폭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²³⁾ 이러한 부조화는 예술 작품 자체에서만 아니라 작품이 유발하는 반응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예술가의 창조적 기질과 심리적 구조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다.²⁴⁾

로마문화의 초기의 기독교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 시기 그림들은 인간적 요소와 동·식물적 요소들이 정교하게 얽혀 결합된 양식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원적으로 보아도 그로테스크는 이질적인 것이 혼합되어 부조화성을 나타내도록 강요된 것을 뜻한다.²⁵⁾

21) 안선경, 양숙희(1995),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pp.173~189.

22) Philip Thomson, 김영무 역(1987), op.cit., p.27.

23) 이영희(2007),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24) 이진모(1989),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7.

25) 한동훈(2009), 게임 캐릭터와 그로테스크 미학의 상관성 연구-MMORPG 장르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영상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그림 1> 2004 F/W Paris comme des Garçons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details#10>)

검색일: 2017.1.23.



<그림 2> 2007 S/S Paris comme des Garçons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7-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details#4>)

검색일: 2017.1.23.



<그림 3> 2018 S/S New York Topman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topman-design>)

검색일: 2017.01.24.



<그림 4> 2016 S/S New York Thom Browne

(<http://runway.vogue.co.kr/2015/09/15/ready-to-wear-2016-ss-thom-browne-collection/#0:7>)

검색일: 2017.01.24.

(2) 해학성

해학성이란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풍자와 함께 주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꼬아서 표현하려는 것을 말한다.²⁶⁾

미학의 분야에서 볼 때 해학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충동의 발산을 위해 나타나며 일상 규칙의 위반,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과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²⁷⁾

그로테스크를 희극의 하부개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천박한 유희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지만, 비극성에 주목하는 사람은 괴기와 신비, 심지어 초자연적 영역으로까지 받아들인다. 두 극단적 반응의 혼재 사이에 존재하는 미해결의 측면이 그로테스크의 특징이다.²⁸⁾

그로테스크의 웃음은 그 자체에 신랄함이 뒤섞여 있으며, 경멸적이며 조롱적으로 변화하면서 마침내는 악마적인 웃음의 특성을 갖게 된다(그림 7),(그림 8).²⁹⁾

26)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print.nhn?docId=921849&cid=4719&categoryId=47319>, (검색일:2017.02.19.).

27)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된 유희성, 복식 22, pp.71~83.

28) 신용준(2008), op.cit., p.4.

29) 이정후(199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5.



<그림 5> 2004 S/S Paris John Galliano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4-ready-to-wear/john-galliano/slide-show/details#15>)
검색일: 2017.01.24.



<그림 6> 2009 S/S Paris John Galliano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9-ready-to-wear/john-galliano/slideshow/beauty#9>)
검색일: 2017.01.24.



<그림 7> 2007 S/S Paris Christian Dior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7-couture/christian-dior#coverage>)
검색일: 2017.01.24.



<그림 8> 2016 S/S London Vivienne Westwood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ivienne-westwood>)
검색일: 2017.01.24.

(3) 과장과 극단성

그로테스크는 정상의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그것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장과 극단이라는 표현 형태로 나타나며, 현실과 비현실의 의식적 뒤얽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와 같이 이는 왜곡과 과장을 통한 공상적인 세계의 표현으로 인해 현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³⁰⁾ 공상적인 것이 단순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부터 이탈을 의미한다면 그로테스크가 공상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그림 10).³¹⁾

그로테스크는 <그림 11>과 같이 현실과 비현실의 의식적인 뒤얽힘이며, 이러한 왜곡과 과장을 통한 공상적인 세계의 표현으로 인해 현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이점이 그로테스크를 강력하게 만든다(그림 12).³²⁾

30) 신용준(2008), op.cit., p.4.

31) Philip Thomson, 김영무 역(1987), op.cit., p.31.

32) 김유경(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그림 9> 2011 F/W Paris Christian Dior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couture/christian-dior/slideshow/beauty#2>)
검색일: 2017.02.02.



<그림 10> 2004 S/S Paris Christian Dior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4-couture/christian-dior#details>)
검색일: 2017.02.02.



<그림 11> 2008 S/S Paris Christian Dior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8-couture/christian-dior/slideshow/details#74>)
검색일: 2017.02.04.



<그림 12> 2008 F/W Paris Christian Dior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08-ready-to-wear/christian-dior/slideshow/details#1>)
검색일: 2017.02.04.

(4) 비정상성

그로테스크는 왜곡과 변형, 과도한 과장의 특징을 갖는다.³³⁾ 그로테스크에 대한 고전적인 반응으로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다.³⁴⁾

비정상성이란 <그림 13>과 같이 정상상태를 벗어난 부자연스러움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한편으로는 우습고 또는 무섭거나 역겨울 수도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과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에서 맛보는 재미는 일단 비정상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친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공포로 바뀐다. 공인된 기준과 규범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느끼는 쾌감은 이러한 규범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했다고 여겨지면 곧 공포가 된다(그림 14), (그림 15).³⁵⁾

필립 톰슨은 <그림 16>과 같이 이러한 양면적 체험 즉,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사진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³⁶⁾

33) 이정혜(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장식 표현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1.

34) 안선경, 양숙희(1995), op.cit., pp.173~189.

35) Philip Thomson, 김영무 역(1987), op.cit.,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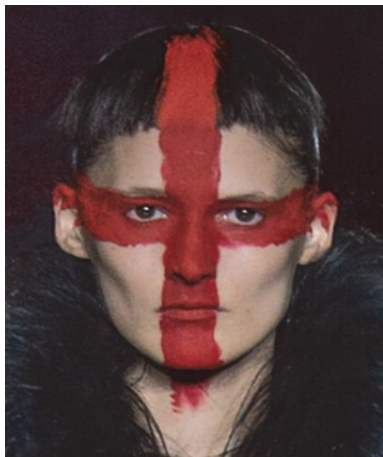
36) 장미숙, 양숙희(2000), op.cit., pp.436~449.



<그림 13> 2003 S/S Paris John Galliano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3-ready-to-wear/john-galliano/slideshow/details#2>)
검색일: 2017.02.06.



<그림 14> 2017 F/W Paris Gareth Pugh
(<http://runway.vogue.co.kr/2017/02/19/fall-2017-gareth-pugh/#0:16>)
검색일: 2017.02.06.



<그림 15> 2015 F/W London Gareth Pugh
(<http://runway.vogue.co.kr/2015/02/22/ready-to-wear-2015-fw-gareth-pugh/#0:15>)
검색일: 2017.02.10.



<그림 16> 2016 S/S London Gareth Pugh
(<http://runway.vogue.co.kr/2015/09/20/ready-to-wear-2016-ss-gareth-pugh-collection/#0:37>)
검색일: 2017.02.10.

2. 패션쇼 메이크업

1) 패션쇼 메이크업의 개념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방법이며, 나아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³⁷⁾

메이크업은 페인팅, 토일렛, 드레싱 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아쥬 등으로 표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화장으로 번역된다.³⁸⁾ 화장을 하는 얼굴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송·수신이 이뤄지는 중요한 부위로서³⁹⁾ 화장의 두 가지 의미로 변신하는 것과 치장으로서 원래의 부분을 고치는 행위이다.⁴⁰⁾ 또한 치장으로서의 메이크업이 유행에 가장 실험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쇼 메이크업이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양상은 무제한적인 미의 수용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⁴¹⁾

패션쇼는 패션디자이너가 새로운 시즌에 앞서서 패션의 경향을 전달하는 것으로 복장 및 그 밖의 제품을 살아있는 모델에게 착용시켜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선보이는 것으로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는 패션쇼를 구성하는 요소에 패션디자이너의 작품과 그 작품들을 표현하는 모델, 작

37) 오정희(2005),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38) 김미정(2004), 패션트렌드에 따른 토탈 메이크업 경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39) 다이보 이쿠오, 조기여, 유태순 역(2005), *의복과 화장의 사회심리학*, 양주:동서교류, p.78.

40) Ibid., p.30.

41) 김미현, 이유나(2008), 2008-2009 F/W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2), pp.151~159.

품을 돋보이게 하는 무대와 조명, 음향들의 조화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다.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패션쇼 메이크업 또는 스테이지 메이크업이라고도 하며 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나 룩(Look)에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완성된다.⁴²⁾ 무엇보다도 패션쇼 메이크업은 시각적 전달과 감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의상과의 조화를 유도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창작하곤 하는데, 이는 예술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미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2) 패션쇼 메이크업의 특징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의상의 컨셉 또는 테마, 디자이너의 의도를 중심으로 색과 선을 결정하여 주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상에서 화려하고 다양한 디테일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토탈 패션 경향에 맞춰 연출되며 메이크업컬러나 패턴이 시즌마다 민감하게 제시된다.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경향을 보면 장소나 조명을 고려하여 색조나 질감을 강하게 넣는 것 보다는 오히려 주제에 부합하는 메이크업에 더욱 초점이 모아져 아주 내추럴한 메이크업부터 레트로, 에스닉, 아티스틱한 메이크업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⁴⁾

패션쇼에서 메이크업과 의상과의 조화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며 패션디자이너의 컨셉은 패션쇼 메이크업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패션에 깊은 이해와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디자이너의 의상과 결합된 창조적인 메이크업을 선보여야 한다.⁴⁵⁾

42) 김지연(2009), 패션과 메이크업 트렌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2, pp.79~92.

43) 박정신(2013), 패션쇼 메이크업의 아방가르드 이미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아시아뷰티화장품학술지*, 11(1), pp.185~192.

44) 장현숙(2004), *op.cit.*, pp.6~7.

(1) 색채

색의 개념은 시지각의 일종으로 일상생활에서 보거나 다루는 색은 물체와 더불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감, 기울기, 표면질감, 대조성 등 그 밖의 심리적인 느낌이나 평가가 따른다.⁴⁶⁾ 전형적인 메이크업에서 컬러의 선택은 아름답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패션쇼 메이크업에서는 그러한 제한적인 컬러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컬러를 선택하여 표현하는데, 이목구비의 일부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축소시켜 생략하거나 극도로 컬러를 제한하는 등의 새로운 시각효과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메이크업과는 달리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컬러는 패션과 독특하고 실험적인 주제에 부합되는 메이크업인 만큼 자유로운 컬러 선택과정형적인 메이크업 컬러의 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특징이다.⁴⁷⁾

(2) 질감

질감은 형태, 색채와 더불어 디자인의 필수 요소로서, 물체의 조성 성질을 말하며, 이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형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물체의 표면 질이라고⁴⁸⁾ 할 수 있다.

메이크업에서의 질감은 표면에서 느껴지는 촉감, 즉 사물의 표면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메이크업에서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의 종류 또는 양, 사용되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데, 최근에는 색채 보

45) 장연아(2016), 현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조형성 연구, 우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46) 김덕록(1997), *화장과 화장품*, 서울: 답게, p.260.

47) 이승주(2006),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 2001~2005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48) 민경우(2001), *디자인의 이해*, 경기: 미진사, p.189.

다 질감을 더 강조한다.⁴⁹⁾

촉감적인 질감은 손으로 만지는 것과 눈으로 느껴지는 것에 의해 대상의 재질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상의 표면이 감각에 의해 인식되는 질감으로 예를 들어 얇은, 두꺼운, 매끄러운, 뾰뾰한, 거친, 부드러운, 젓은, 까칠까칠한, 차가운, 따듯한 등으로 볼 수 있다.⁵⁰⁾

시각적인 질감의 종류는 장식적 질감, 자연적 질감, 기계적 질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장식적 질감은 표면상의 질감인 동시에 형태라고 보는 것이며, 기계적 질감은 특수나 기계나 도구의 사용으로 얻어진 질감이나 그래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⁵¹⁾

(3) 형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자연물에서 인공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조형언어를 삼고 있는 특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메이크업 디자인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형태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들은 점, 선, 면, 입체가 있고 디자인에서의 형태는 대상물이 추구하는 사용목적과 일치할 때 비로소 독립된 형태로써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실용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⁵²⁾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의 형태에서는 얼굴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기교로서 아름다운 곡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좌우대칭, 비례, 균형, 유기적 통일감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조형예술의 성향이 강한 패션쇼 메이크업에서는 정형적 스타일을 파괴하여 얼굴 윤곽을 크게 고려하지 않거나 강

49) 박정신(2008), 뵐플린의 양식 개념에 의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5.

50) 김민정(2010), 바디아트 마티에르표현기법에 관한 연구-촉각질감표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51) 임정미(2006), 바디아트의 질감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6-37.

52) 정승희(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9.

조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하고 이목구비의 형태, 좌우대칭 구조를 무시한 탈 형식적인 시도들이 나타난다.⁵³⁾ 이렇듯 메이크업디자인에서는 일정한 사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무제한적으로 표현하는데 펠이나 글리터링의 질감을 이용해 차갑고 비인간적인 형태를 통해 부조화를 표현함과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하여 실험적인 전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⁵⁴⁾

(4) 디테일

메이크업에 있어서 디테일로는 피부 위에 프린팅을 한다거나, 종이나 비닐 직물 조각 등의 이질적인 소재를 붙이거나 링 등을 피어싱을 하는 것, 깃털이나 꽃 등의 다양한 소품들을 장식하는 것 등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메이크업에서는 이러한 디테일적인 요소 또는 장식적인 요소가 보기 드물지만 패션쇼에서는 조형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패션쇼 메이크업에서는 이러한 디테일적인 요소가 신체에도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그것은 메이크업과 의상과의 동일성과 조화로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⁵⁵⁾

53) 이승주(2006), op.cit., p.55.

54) 정승희(2010), op.cit., p.41.

55) 이승주(2006), op.cit., p.58.

3. 알렉산더 맥퀸

1) 알렉산더 맥퀸의 생애

알렉산더 맥퀸은 1969년 3월 17일 런던에서 태어나 16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런던의 고급 양복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인 새빌 로의 유명 양복점에서 견습생으로 패션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1세에 로메오 질리의 어시스턴트 디자이너로 고용되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생활하였다. 1994년 런던으로 돌아와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칼리지에서 패션 디자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⁵⁶⁾

알렉산더 맥퀸은 1996년 프랑스 브랜드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2001년까지 지방시에서 활동하였다. 2001년 구찌 그룹이 알렉산더 맥퀸의 이름을 딴 브랜드의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구찌 그룹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다. 이후 세컨드 라인 브랜드 맥큐와 향수 브랜드 마이퀸 등을 런칭 하였으며, 푸마, 샘 소나이트, 시바스리갈 등의 다양한 브랜드와의 디자인 협업도 진행하였다.

2006년 말까지 알렉산더 맥퀸 브랜드는 뉴욕, 런던, 파리, 보스턴, 밀라노, 상파울로, 모스크바, 도쿄, 서울 등 세계 약 25개 도시에 진출하였다. 또한, 1996년, 1997년, 2001년, 2003년에 역대 최연소로 영국패션협회의 영국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3년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로부터 세계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⁵⁷⁾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알렉산더 맥퀸은 2007년 보그지의 에디터인 이자벨라 블로우(Isabella Delves Broughton, 1958~2007)의 자살 이후 우울증을 앓았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0일이 채 안 되어 그 역시 런던 자택에서 2010년 2월 11일 런던 자택에서 우울증으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⁵⁸⁾

56)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685&cid=58794&categoryId=59126> (검색일: 2017.03.03.).

57) Ibid.

58) 박혜경(2011), op.cit., p.43.

2)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 세계

알렉산더 맥퀸은 1994년 쇼를 시작으로 매우 충격적인 무대와 디자인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고, 패션계와 언론으로부터 매우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알렉산더 맥퀸은 단순히 패션 디자이너라기보다는 크리스찬 디올이나 이브 생 로랑 같은 패션계 리더였으며, 패션계에 엄청난 예술적 영향을 끼쳐 패션의 역할을 더욱 새롭게 했다. 알렉산더 맥퀸은 여성혐오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어둡고 변태적인 스타일로 모델들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신체 결박이나 체인메일⁵⁹⁾을 활용하거나 심지어는 엄청나게 조이는 코르셋 때문에 모델이 기절하기도 했다. 또 패션쇼인지 현대 설치미술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화려한 무대 디자인과 연출로 현실성 없는 옷을 만든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알렉산더 맥퀸에게 패션은 단순한 자기표현의 수단이 아니었다. 19~20C 회화나 조각 작품들처럼 맥퀸의 옷을 입거나 가진 사람들은 알렉산더 맥퀸이 주는 환상적이면서도 음산한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었다. 이런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알렉산더 맥퀸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면을 파격적인 스타일로 표현했는데, 마술, 강간, 사형과 같은 주제를 아름다운 의상으로 표현했다.⁶⁰⁾

1996년부터 지방시의 수석디자이너로 활동한 알렉산더 맥퀸은 동시대 패션의 틀을 깨고 상업적인 한계를 벗어난 의상과 패션쇼를 통해 자기표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각 예술이면서 동시에 퍼포먼스 또는 프리젠테이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대중문화, 상업주의 문화적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⁶¹⁾ 오드리 햅번(Audrey

59) 체인메일(Chainmail) : 쇠사슬을 엮어 만든 갑옷,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79&cid=42822&categoryId=42822> (검색일: 2017.03.20).

60) 크리스틴 녹스, 박성은 역(2012), *알렉산더 맥퀸 : 이 시대의 천재*, 서울:비즈니스, p.7.

61) 백정현, 배수정(2010),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에 나타난 혼합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Hepburn, 1929~1993)이 주 고객이었던 지방시 브랜드의 절제된 파리지앵 스타일의 우아함은 젊은 알렉산더 맥퀸의 스타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파리에서 다소 엉뚱하고 생소한 패션을 선보인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는 미디어와 바이어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결국 5년 만에 지방시와 갈라선 그는 몇 시즌 지나지 않아 자신만의 고유 브랜드를 런칭 하였다.⁶²⁾

여기서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나타난 고스문화를 놓치고 갈 수 없다(그림 17),(그림 18).

고스라는 개념은 고딕⁶³⁾이라는 표현과 함께 많은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스는 음산함과 죽음, 어두움의 미학 등으로 대변되는 1970년 말 영국 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화이다. 고스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게르만족의 한 종족인 고트족이라는 의미지만 현대적 의미의 고스는 펑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로 두드러진 사람들의 하위 문화를 일컫는다(그림 19),(그림 20).⁶⁴⁾

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1), pp.211~212.

62) 크리스틴 녹스, 박성은 역(2012), op.cit., p.12.

63) 고딕(Gothic) : A.D.5세기 북유럽 고트족에서 유래한 것이며, 17세기 영국에서 중세의 교회 건축양식을 묘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18세기 후반에는 예술가들이 억눌린 사회에 반항하고자 고딕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김선경,최희자,명광주,2011).

64) 박은경(2005), 현대패션에 표현된 Gout 스타일 연구, 복식, 55(6), pp.159~171.



<그림17> Alexander McQueen 고스 패션
 화보 I (출처:Getty image)
 (<http://mbdrive.gettyimageskorea.com>)
 검색일: 2017.03.25.



<그림18> Alexander McQueen 고스 패션
 화보 II (출처:Getty image)
 (<http://mbdrive.gettyimageskorea.com>)
 검색일: 2017.03.25.



<그림19> Alexander McQueen 2014
 F/W 패션화보
 (<http://blog.naver.com/mobeedee/220072810627>)
 검색일: 2017.03.25.



<그림20> Alexander McQueen 2014 S/S
 패션화보
 (<http://blog.naver.com/fk6/120206530478>)
 검색일: 2017.03.25.

Ⅲ. 알렉산더 맥퀸의 그로테스크 내용 분석 연구

1.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진 자료는 알렉산더 맥퀸의 각종 패션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진자료의 패션쇼기간은 1995~2016년이다.

사진 자료는 알렉산더 맥퀸의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패션 잡지와 패션 컬렉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40개의 사진을 발췌하였다. I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알렉산더 맥퀸이 지방시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있을 때 패션쇼 사진 80장, II기 2002년부터 2009년 본인의 브랜드인 알렉산더 맥퀸의 자신의 고유 브랜드로 활약 했던 사진 80장, 그리고 III기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알렉산더 맥퀸의 사후 브랜드 패션쇼 사진 80장의 사진이 포함되었다.

참고한 홈페이지는 Vogue⁶⁵⁾, Livingly⁶⁶⁾, VOGUE Korea⁶⁷⁾이며, 2017년 1월 18일부터 3월 28일 까지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은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에서 눈썹, 눈, 입술, 얼굴을 그로테스크 적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택하였으며,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고 메이크업이 뚜렷한 형태의 사진만을

65) 1995~2016 S/S Ready to wear Paris, 1995~2016 F/W Ready to wear Paris, 1995~2016 S/S Ready to wear London, 1995~2016 F/W Ready to wear London, 2009~2015 S/S Ready to wear Milan, 2009~2015 F/W Ready to wear Milan, 2015 Ready to wear New York, <http://www.vogue.com/fashion-shows/designer/alexander-mcqueen>(검색일:2017.01.18.~2017.03.28.).

66) 2002~2016 S/S Ready to wear Paris, 2002~2016 F/W Ready to wear Paris, 2016 F/W Ready to wear London, <http://www.livingly.com/designer/Alexander+McQueen?Page=1>(검색일:2017.01.18.~2017.03.28.).

67) 2005~2016 S/S Ready to wear Paris, 2005~2016 F/W Ready to wear Paris, 2005~2016 S/S Ready to wear London, 2005~2016 F/W Ready to wear London, <http://runway.vogue.co.kr/?designer=4>(검색일:2017.01.18.~2017.03.28.).

대상으로 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컬렉션의 사진을 1995년~2016년 연도별로 분류하였다.

<표 2> 연도별 연구대상

구분 년도	컬렉션명	연구대상의 빈도	%
1995	Spring 1995 Ready-to-Wear	6	2.5
	소계	6	2.5
1996	Spring 1996 Ready-to-Wear	6	2.5
	Fall 1996 Ready-to-Wear	5	2.08
	소계	11	4.58
1997	Spring 1997 Ready-to-Wear	6	2.5
	Fall 1997 Ready-to-Wear	10	4.16
	소계	16	6.66
1998	Spring 1998 Ready-to-Wear	12	5
	Fall 1998 Ready-to-Wear	5	2.08
	소계	17	7.08
1999	Spring 1999 Ready-to-Wear	5	2.08
	Fall 1999 Ready-to-Wear	4	1.66
	소계	9	3.75
2000	Spring 2000 Ready-to-Wear	8	3.33
	Fall 2000 Ready-to-Wear	10	4.16
	소계	18	7.5
2001	Spring 2001 Ready-to-Wear	1	0.41
	Fall 2001 Ready-to-Wear	2	0.83
	소계	3	1.25

2002	Spring 2002 Ready-to-Wear	9	3.75
	Fall 2002 Ready-to-Wear	6	2.5
	소계	15	6.25
2003	Spring 2003 Ready-to-Wear	11	4.58
	Fall 2003 Ready-to-Wear	4	1.66
	소계	15	6.25
2004	Spring 2004 Ready-to-Wear	7	2.91
	Fall 2004 Ready-to-Wear	3	1.25
	소계	10	4.16
2005	Spring 2005 Ready-to-Wear	3	1.25
	Fall 2005 Ready-to-Wear	7	2.91
	소계	10	4.16
2006	Spring 2006 Ready-to-Wear	3	1.25
	Fall 2006 Ready-to-Wear	2	0.83
	소계	5	2.08
2007	Spring 2007 Ready-to-Wear	4	1.66
	Fall 2007 Ready-to-Wear	4	1.66
	소계	8	3.33
2008	Spring 2008 Ready-to-Wear	5	2.08
	Fall 2008 Ready-to-Wear	5	2.08
	소계	10	4.16
2009	Spring 2009 Ready-to-Wear	2	0.83
	Fall 2009 Ready-to-Wear	5	2.08
	소계	7	2.91
2010	Spring 2010 Ready-to-Wear	4	1.66
	Fall 2010 Ready-to-Wear	3	1.25
	소계	7	2.91

2011	Spring 2011 Ready-to-Wear	8	3.33
	Fall 2011 Ready-to-Wear	5	2.08
	소계	13	5.41
2012	Spring 2012 Ready-to-Wear	6	2.5
	Fall 2012 Ready-to-Wear	3	1.25
	소계	9	3.75
2013	Spring 2013 Ready-to-Wear	2	0.83
	Fall 2013 Ready-to-Wear	4	1.66
	소계	6	2.5
2014	Spring 2014 Ready-to-Wear	6	2.5
	Fall 2014 Ready-to-Wear	11	4.58
	소계	17	7.08
2015	Spring 2015 Ready-to-Wear	5	2.08
	Fall 2015 Ready-to-Wear	10	4.16
	소계	15	6.25
2016	Spring 2016 Ready-to-Wear	4	1.66
	Fall 2016 Ready-to-Wear	9	3.75
	소계	13	5.41
총 계		240	100

2. 그로테스크 특성종류 및 요소분석 요목과 분석단위

본 연구는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표현요소 중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분석 연구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사진에 대한 분석 신뢰도를 주기위해 메이크업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3인에 의해 특성에 맞는 사진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셋째,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의 범주구분은 자료 의존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요목 4개와 분석단위 4개를 선정하였으며, 분석요목의 기준점은 선행논문 방수진(2008)⁶⁸, 백경진(2013)⁶⁹, 송미영(2006)⁷⁰ 참고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68) 방수진(2008), 자크 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81~148.

69) 백경진(2013),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별 형성요소와 메이크업 디자인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2~75.

70) 송미영(2006),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0~52.

<표 3> 그로테스크 특성에 따른 메이크업 분석요목

분석요목	분석단위	분석내용	
눈썹	4	부조화성 과장과극단성	해학성 비정상성
눈	4	부조화성 과장과극단성	해학성 비정상성
입술	4	부조화성 과장과극단성	해학성 비정상성
얼굴	4	부조화성 과장과극단성	해학성 비정상성
합 계		16	

분석의 내용으로는 눈썹, 눈, 입술, 얼굴 모두 부조화성, 해학성, 과장과 극단성, 비정상성으로 나누었다.

전문가 집단이 보았을 때, 눈썹의 부조화성은 눈썹을 없애거나 미완성 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해학성은 본연의 눈썹을 끝이곧대로 드러내지 않고 왜곡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을 말한다. 또한, 과장과 극단성은 눈썹을 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과장된 형태를 말하며, 비정상성은 눈썹이 정상상태를 벗어나 부자연스러움으로 우습거나 또는 무섭게 표현된 것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으며 분류된 요목별 사진은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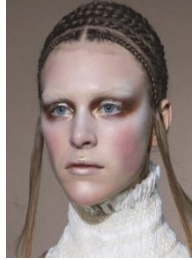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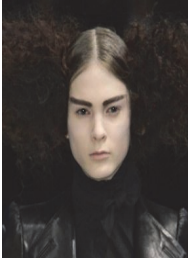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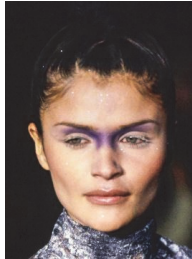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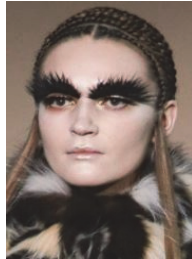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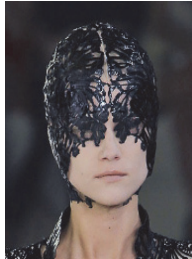

눈의 부조화성을 보면 눈에 모순되는 것들의 조합에 의한 불균형적으로 표현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학성은 눈의 형태를 변형시켜 표현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나타낸 것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과장과 극단성은 눈의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거나 범위를 넘어서 극단적으로 강조된 표현을

말하며, 비정상성은 눈을 정상적이지 않게 변형시키거나 과장된 표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요목별 사진은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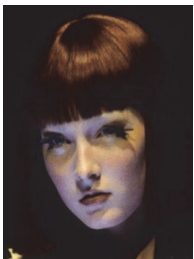

입술의 부조화성은 입술의 형태를 없애거나 다른 메이크업 요소들과의 조화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해학성은 입술을 정상적이지 않고 왜곡하거나 비꼬아서 우스꽝스럽게 나타낸 표현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또한, 과장과 극단성은 입술에 포인트를 주거나 극단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으로부터 이탈하는 표현을 말하며, 비정상성은 입술에 오브제를 사용하여 입술의 형태를 왜곡시키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표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요목별 사진은 <표 6>과 같다.

얼굴의 부조화성은 인간과 비인간적인 결합과 이질적인 것과의 결합이 나타난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해학성은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웃음을 유발하며 천박한 유희나 괴기스럽고 신비스러운 표현을 말한다. 또한, 과장과 극단성은 얼굴 전체에 색을 입혀 본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표현하거나 부분적이 아닌 얼굴전체의 느낌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을 말하고, 비정상성은 얼굴 전체에 오브제를 사용하여 기이하게 표현하여 한편으로는 우습고 또는 무섭거나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표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요목별 사진은 <표 7>과 같다.

<표 4> 눈썹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종류

부 조 화 성	 <p>2010 S/S</p>	 <p>2010 S/S</p>	 <p>2013 F/W</p>	 <p>2014 F/W</p>
해 학 성	 <p>1996 S/S</p>	 <p>2008 F/W</p>	 <p>1997 F/W</p>	 <p>2003 F/W</p>
과 장 과 극 단 성	 <p>1997 F/W</p>	 <p>2005 S/S</p>	 <p>1996 F/W</p>	 <p>2014 F/W</p>
비 정 상 성	 <p>1999 S/S</p>	 <p>2009 F/W</p>	 <p>2012 S/S</p>	 <p>2000 S/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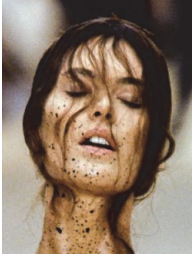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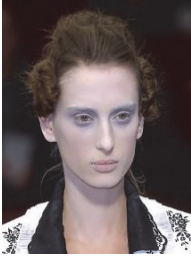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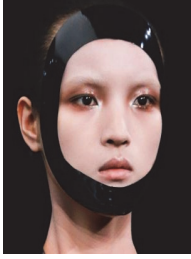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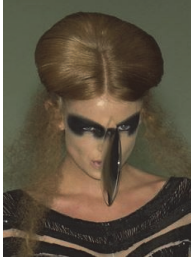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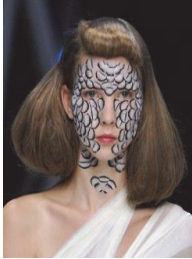



<표 5> 눈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종류

부 조 화 성	 1997 S/S	 2005 F/W	 1998 F/W	 1996 F/W
해 학 성	 2003 F/W	 1998 S/S	 2007 F/W	 2004 S/S
과 장 과 극 단 성	 2003 S/S	 2000 S/S	 2002 F/W	 1997 F/W
비 정 상 성	 1998 S/S	 2015 F/W	 1999 F/W	 2002 S/S

<표 6> 입술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종류

부 조 화 성	 1997 F/W	 2010 F/W	 2003 F/W	 2014 F/W
해 학 성	 2009 F/W	 2014 F/W	 2010 S/S	 2009 F/W
과 장 과 극 단 성	 2016 F/W	 2001 F/W	 1997 F/W	 2014 F/W
비 정 상 성	 1997 F/W	 1998 F/W	 2000 S/S	 2000 F/W

<표 7> 얼굴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종류

부조화성	 <p>2004 F/W</p>	 <p>1999 S/S</p>	 <p>2007 S/S</p>	 <p>2015 S/S</p>
해학성	 <p>2000 F/W</p>	 <p>1997 F/W</p>	 <p>1998 F/W</p>	 <p>2003 S/S</p>
과장 과극 단성	 <p>2002 F/W</p>	 <p>1997 F/W</p>	 <p>2015 S/S</p>	 <p>2003 S/S</p>
비정상성	 <p>2008 S/S</p>	 <p>2000 S/S</p>	 <p>2012 S/S</p>	 <p>1997 S/S</p>

3.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의 요목에 따른 신뢰도

본 연구는 내용분석에 주관적인 견해를 줄이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박사 이상의 메이크업 분야 전문가 3명이 참여하여 분석하였다. 요목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자료를 3명이 분석한 후, 이들 분석자들 사이의 상호 일치도를 상관계수로 조사하였다. 이때 종합적 신뢰도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⁷¹⁾

$$\text{종합적 신뢰도} = \frac{N(\text{분석자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1 + (N-1)(\text{분석자 상호간의 평균일치도})}$$

(N= 분석자의 수)

예를 들면 눈썹의 분석자 수를 3인의 분석자 A, B, C가 따로따로 분석한 후 이들 3명간의 상호간의 일치도의 정도를 알아 본 결과가 <표 8>과 같다면 이 모든 수치를 합친 후, 이들의 평균치 즉, 분석자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를 구해보면 0.93가 된다.

<표 8> 3인의 상호간의 일치도 예

	A	B
B	0.98	
C	0.95	0.99

따라서 이 평균치를 위의 식에 대입해서 종합적 신뢰도를 계산하여 보면 $3(0.93) / \{1 + (3-1)(0.93)\}$ 로써 그 값이 0.97로 나온다. 주 요목별 분석자간 일치도는 3인의 일치코딩수를 총 코딩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71) 차배근, 차경옥 (2013),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316.

<표 9> 분석요목의 종류와 종합적 신뢰도의 값

분석요목	종합적 신뢰도
눈썹	0.98
눈	0.97
입술	0.97
얼굴	0.98

각 주요목별 일치도는 0.97이상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도별 전체 특성별 메이크업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를 연도별 빈도분석 한 결과 1998년, 2000년, 2014년이 17장으로 가장 많았고, 2001년 사진이 4장으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표 10>은 연도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연도별 빈도 분석 (N=240)

연도		빈도	퍼센트
I 기	1995	6	2.5
	1996	11	4.6
	1997	16	6.7
	1998	17	7.1
	1999	9	3.8
	2000	17	7.1
	2001	4	1.7
II 기	2002	15	6.3
	2003	15	6.3
	2004	10	4.2
	2005	10	4.2
	2006	5	2.1
	2007	8	3.3
	2008	10	4.2
	2009	7	2.9
III 기	2010	7	2.9
	2011	13	5.4
	2012	9	3.8
	2013	6	2.5
	2014	17	7.1
	2015	15	6.3
	2016	13	5.4
전체		240	100.0

1) 분석요목별 빈도 분석

메이크업에 따른 그로테스크 특성별 빈도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눈썹에서는 해학성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비정상성, 부조화성, 과장과 극단성 순이었으며, 눈에서는 과장과 극단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정상성, 해학성, 부조화성순으로 나타났다. 입술에서는 부조화성이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성, 과장과 극단성, 해학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얼굴은 해학성이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성, 과장과 극단성, 부조화성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분석요목별 빈도 분석 (N=240)

구분		빈도	퍼센트
눈썹	부조화성	58	24.2
	해학성	69	28.7
	과장과 극단성	51	21.3
	비정상성	62	25.8
	전체	240	100.0
눈	부조화성	39	16.3
	해학성	54	22.5
	과장과 극단성	88	36.7
	비정상성	59	24.6
	전체	240	100.0
입술	부조화성	112	46.7
	해학성	23	9.6
	과장과 극단성	24	10.0
	비정상성	81	33.8
	전체	240	100.0
얼굴	부조화성	46	19.2
	해학성	91	37.9
	과장과 극단성	49	20.4
	비정상성	54	22.5
	전체	240	100.0

2. 연도별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특성

1) 기간별 눈썹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및 교차 분석

다음은 I기는 1995~2001 알렉산더 맥퀸이 지방시 브랜드 수석 디자이너 시절, II기는 2002~2009 알렉산더 맥퀸 본인의 이름을 건 브랜드 시작 시절, III기는 2010~2016 알렉산더 맥퀸 사후 브랜드 컬렉션 분석사진 총 240장의 사진을 눈썹 그로테스크 특성으로 분류한 표이다(표 12).

I기에서 눈썹의 그로테스크 특성은 해학성 12.9%로 가장 높았고, II기는 부조화성이, III기는 비정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 기간별 눈썹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N=240)

교차분석		눈썹				전체	
		부조화성	해학성	과장과 극단성	비정상성		
기간	I 기	빈도	20	31	12	17	80
		기대빈도	19.3	23.0	17.0	20.7	80.0
		기간(%)	25.0	38.8	15.0	21.3	100.0
		눈썹(%)	34.5	44.9	23.5	27.4	33.3
		전체(%)	8.3	12.9	5.0	7.1	33.3
	II기	빈도	23	16	19	22	80
		기대빈도	19.3	23.0	17.0	20.7	80.0
		기간(%)	28.7	20.0	23.8	27.5	100.0
		눈썹(%)	39.7	23.2	37.3	35.5	33.3
		전체(%)	9.6	6.7	7.9	9.2	33.3
	III기	빈도	15	22	20	23	80
		기대빈도	19.3	23.0	17.0	20.7	80.0
		기간(%)	18.8	27.5	25.0	28.7	100.0
		눈썹(%)	25.9	31.9	39.2	37.1	33.3
		전체(%)	6.3	9.2	8.3	9.6	33.3
전체	빈도	58	69	51	62	240	
	기대빈도	58.0	69.0	51.0	62.0	240.0	
	기간(%)	24.2	28.7	21.3	25.8	100.0	
	눈썹(%)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24.2	28.7	21.3	25.8	100.0	

교차분석 후 I,II,III기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그로테스크 특성의 눈썹메이크업은 다른 메이크업 요소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13).

<표 13> 기간별 눈썹 그로테스크 교차 분석

	값	df	p값(p-value)
χ^2	9.881 ^a	6	.130
우도비	10.068	6	.122
선형 대 선형결합	3.112	1	.078
유효 케이스 수	240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17.00입니다.

2) 기간별 눈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및 교차 분석

기간별 눈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I기의 시기는 그로테스크 특성 중 비정상성이 가장 높았고 II기와 III기는 과장과 극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4> 기간별 눈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N=240)

교차분석		눈				전체	
		부조화성	해학성	과장과 극단성	비정상성		
기간	I 기	빈도	8	22	23	27	80
		기대빈도	13.0	18.0	29.3	19.7	80.0
		기간(%)	10.0	27.5	28.7	33.8	100.0
		눈(%)	20.5	40.7	26.1	45.8	33.3
		전체(%)	3.3	9.2	9.6	11.3	33.3
	II기	빈도	11	23	31	15	80
		기대빈도	13.0	18.0	29.3	19.7	80.0
		기간(%)	13.8	28.7	38.8	18.8	100.0
		눈(%)	28.2	42.6	35.2	25.4	33.3
		전체(%)	4.6	9.6	12.9	6.3	33.3
	III기	빈도	20	9	34	17	80
		기대빈도	13.0	18.0	29.3	19.7	80.0
		기간(%)	25.0	11.3	42.5	21.3	100.0
		눈(%)	51.3	16.7	38.6	28.8	33.3
		전체(%)	8.3	3.8	14.2	7.1	33.3
전체	빈도	39	54	88	59	240	
	기대빈도	39.0	54.0	88.0	59.0	240.0	
	기간(%)	16.3	22.5	36.7	24.6	100.0	
	눈(%)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6.3	22.5	36.7	24.6	100.0	

교차분석 후 I,II,III기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1$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그로테스크 특성의 눈 메이크업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5).

<표 15> 기간별 눈 그로테스크 교차 분석

	값	df	p값(p-value)
χ^2	19.186 ^a	6	.004**
우도비	19.726	6	.003**
선형 대 선형결합	2.669	1	.102
유효 케이스 수	240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13.00입니다.

** $p<.01$,

3) 기간별 입술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및 교차 분석

기간별 입술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입술은 I, II, III기의 기간 모두 그로테스크 특성 중 부조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6>기간별 입술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N=240)

교차분석		입술				전체	
		부조화성	해학성	과장과 극단성	비정상성		
기간	I 기	빈도	36	6	6	32	80
		기대빈도	37.3	7.7	8.0	27.0	80.0
		기간(%)	45.0	7.5	7.5	40.0	100.0
		입술(%)	32.1	26.1	25.0	39.5	33.3
		전체(%)	15.0	2.5	2.5	13.3	33.3
	II 기	빈도	37	9	8	26	80
		기대빈도	37.3	7.7	8.0	27.0	80.0
		기간(%)	46.3	11.3	10.0	32.5	100.0
		입술(%)	33.0	39.1	33.3	32.1	33.3
		전체(%)	15.4	3.8	3.3	10.8	33.3
	III기	빈도	39	8	10	23	80
		기대빈도	37.3	7.7	8.0	27.0	80.0
		기간(%)	48.8	10.0	12.5	28.7	100.0
		입술(%)	34.8	34.8	41.7	28.4	33.3
		전체(%)	16.3	3.3	4.2	9.6	33.3
전체	빈도	112	23	24	81	240	
	기대빈도	112.0	23.0	24.0	81.0	240.0	
	기간(%)	46.7	9.6	10.0	33.8	100.0	
	입술(%)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46.7	9.6	10.0	33.8	100.0	

교차분석 후 I,II,III기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5$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그로테스크 특성의 입술메이크업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17).

<표 17> 기간별 입술 그로테스크 교차 분석

	값	df	p값(p-value)
χ^2	3.289 ^a	6	.772
우도비	3.296	6	.771
선형 대 선형결합	.987	1	.320
유효 케이스 수	240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7.67입니다.

4) 기간별 얼굴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및 교차 분석

기간별 얼굴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얼굴은 I, II, III기 기간 모두 그로테스크 특성 중 해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8> 기간별 얼굴 그로테스크 특성 차이 (N=240)

교차분석		얼굴				전체	
		부조화성	해학성	과장과 극단성	비정상성		
기간	I 기	빈도	9	35	11	25	80
		기대빈도	15.3	30.3	16.3	18.0	80.0
		기간(%)	11.3	43.8	13.8	31.3	100.0
		얼굴(%)	19.6	38.5	22.4	46.3	33.3
		전체(%)	3.8	14.6	4.6	10.4	33.3
	II 기	빈도	16	30	21	13	80
		기대빈도	15.3	30.3	16.3	18.0	80.0
		기간(%)	20.0	37.5	26.3	16.3	100.0
		얼굴(%)	34.8	33.0	42.9	24.1	33.3
		전체(%)	6.7	12.5	8.8	5.4	33.3
	III 기	빈도	21	26	17	16	80
		기대빈도	15.3	30.3	16.3	18.0	80.0
		기간(%)	26.3	32.5	21.3	20.0	100.0
		얼굴(%)	45.7	28.6	34.7	29.6	33.3
		전체(%)	8.8	10.8	7.1	6.7	33.3
전체	빈도	46	91	49	54	240	
	기대빈도	46.0	91.0	49.0	54.0	240.0	
	기간(%)	19.2	37.9	20.4	22.5	100.0	
	얼굴(%)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9.2	37.9	20.4	22.5	100.0	

교차분석 후 I,II,III기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5$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그로테스크 특성의 얼굴 메이크업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9).

<표 19> 기간별 얼굴 그로테스크 교차 분석

	값	df	p값(p-value)
χ^2	13.515 ^a	6	.036*
우도비	13.732	6	.033*
선형 대 선형결합	3.314	1	.069
유효 케이스 수	240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15.33입니다.

* $p<.05$.

3. 상관관계 분석

1995년~2016년까지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 메이크업은 눈썹과 눈, 입술, 얼굴의 그로테스크 특성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눈썹과 얼굴은 모두 그로테스크 특성에서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눈은 얼굴과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입술은 눈썹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표 20> 각 요목별 상관관계 분석

	눈썹	눈	입술	얼굴
눈썹	1			
눈	.300**	1		
입술	.204**	.050	1	
얼굴	.358**	.438**	.174**	1

** $p < .01$.

V. 결 론

본 연구는 그로테스크 특성이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 메이크업 요소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와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로테스크 개념과 특성 전개와 함께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 메이크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눈썹, 눈, 입술, 얼굴로 요목을 나누고 그로테스크 적 특성을 비정상성, 해학성, 과장과 극단성, 비정상성으로 세분화시켜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이미지 중에서 그로테스크 특성이 잘 나타난 메이크업 사진자료를 22년간 알렉산더 맥퀸이 지방시 브랜드에 수석디자이너로 있던 7년간의 80장사진, 자신의 고유 브랜드로 활약했던 8년간의 80장사진, 알렉산더 맥퀸의 사후 작년까지 7년간의 80장사진 단위로 나누어 총 240장의 사진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여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메이크업 요소로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를 이처럼 설정하고 분석 타당성이 있는 작품으로서 작품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위해 전문가 3인에 의해 각 1995년~2016년까지 22년 동안의 메이크업의 특성이 잘 나타난 작품을 레디 투 웨어 패션쇼에서 자료를 도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은 연도별 빈도분석을 보았을 때, 1998년, 2000년, 2014년이 17장으로 가장 많았고, 2001년 사진이 4장으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눈썹메이크업에서는 그로테스크 특성 중 해학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정상성, 부조화성, 과장과 극단성 순이었으며, 눈에서는 과장과 극단성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비정상성, 해학성, 부조화성순으로 나타났다.

입술에서는 부조화성이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성, 과장과 극단성, 해학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얼굴은 해학성이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성, 과장과 극단성, 부조화성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알렉산더 맥퀸 브랜드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알렉산더 맥퀸이 타 브랜드에 속해있을 때의 기간을 I기, 알렉산더 맥퀸의 고유 브랜드로 활약했을 때의 기간을 II기, 알렉산더 맥퀸의 사후 기간을 III기로 나누었을 때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눈썹 메이크업을 기간별로 분류하였을 때, I기에서 눈썹의 그로테스크 특성은 해학성(12.9%)로 가장 높았고, II기는 부조화성이, III기는 비정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5$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눈썹 메이크업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눈 메이크업을 기간별로 분류하였을 때, I기는 비정상성이 가장 높았고 II기와 III기는 과장과 극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1$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눈 메이크업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술 메이크업을 기간별로 분류하였을 때, I, II, III기가 부조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5$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입술메이크업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얼굴메이크업을 기간별로 분류 하였을 때는, I, II, III기 모두 해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05$ 이므로 각 기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얼굴메이크업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 하였다.

눈썹과 눈, 입술, 얼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눈썹과 얼굴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고, 눈은 얼굴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입술은 눈썹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의상뿐 아니라 메이크업에서도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결합들은 예측 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들어 내며 그로테스크 특성을 가진 메이크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에 국한된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른 브랜드 패션쇼의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에 관한 이미지 분석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덕록(1997), *화장과 화장품*, 서울: 답게.
- 김미정(2004), 패션트렌드에 따른 토탈 메이크업 경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현, 이유나(2008), 2008~2009 F/W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2), pp.151~159.
- 김민정(2010), 바디아트 마티에르표현기법에 관한 연구-촉각질감표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2008),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의 그로테스크적 특성, *복식*, 58(8), pp.106~119.
- 김유경(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9), 패션과 메이크업 트렌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2, pp.79~92.
- 다이보 이쿠오, 조기여, 유태순 역(2005), *의복과 화장의 사회심리학*, 양주: 동서교류.
- 민경우(2001), *디자인의 이해*, 경기: 미진사.
- 백경진(2013),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별 형성요소와 메이크업 디자인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슬기(2007), 그로테스크 미학의 존재론적 기반과 의의, *인문과학논총* 58, pp.179~203.
- 방수진(2008), 자크 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경(2003),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포스트 모던 그로테스크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10), pp.85~100.

- 박은경, 정현숙(2005), 현대패션에 표현된 Gout 스타일 연구, *복식*, 55(6), pp.159~171.
- 백정현, 배수정(2010),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에 나타난 혼합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1), pp.211~212.
- 박정신(2013), 패션쇼 메이크업의 아방가르드 이미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아시아 뷰티화장품학술지*, 11(1), pp.185~192.
- 박정신(2008), 벨플린의 양식 개념에 의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미영(2006),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용준(2008), 그로테스크 아트퍼니처에 관한 연구-기형(畸形)적 형태의 아트퍼니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모(1989),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승주(2006),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 2001~2005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경, 양숙희(1995),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pp.173~189.
- 이선화(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복식*, 61(5), pp.34~47.
- 이영희(2007),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후(199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혜(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장식 표현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희(2005),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A%A4 (검색일: 2017.03.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685&cid=58794&categoryId=59>

(검색일: 2017.03.03.).

[http://terms.naver.com/print.nhn?docId=921849&cid=4719&categoryId=47319,](http://terms.naver.com/print.nhn?docId=921849&cid=4719&categoryId=47319)

(검색일: 2017.02.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79&cid=42822&categoryId=42822>

(검색일: 2017.03.20.).

ABSTRACT

Analysis of Grotesque Characteristic Makeups of Alexander McQueen Fashion Collections

Uhn-Na Kim

Graduate School of Fusion Beauty in

Sung-shin Women's Univ.

Makeup · Special Makeup

In contemporary society, personal differentiate personalities and creativities have been crucial and unlimited varieties, which is hard to describe just right from wrong, have been expanded.

Especially grotesque motivates visual impact to contemporaries who are insensitive to common stuff and reveals pending issues of contemporary society such as psychological mismatch, alienation phenomenon and so on. Moreover grotesque has infinite potentials for diverse cultures - fashion, fin art, movie, music, makeup, architecture, etc. The study analyzes grotesque characteristics as shown in Alexander McQueen's Fashion Collections. The makeups of Alexander Mcqueen's Fashion Collections have grotesque characteristics. The study analyzes eyes, eyebrows, lips, faces of grotesque characteristic's pictures of McQueens'. And the study analyzes correlations by the factors and periodical

difference analysis.

The factors - eyes, eyebrows, lips, faces of McQueen's collection makeups separate out mismatch, humor, exaggeration & extreme, abnormality throughout grotesque characteristics. Two hundred forty pics from 1995 to 2016 in the collections are used for the analysis which consists of eighty pics from 1995 to 2001 when McQueen worked for Givenchy and another eighty pics from 2002 to 2009 when he worked for his own company and the other eighty pics from 2010 to 2016 after his death.

The study used SPSS 18.0 program to analyze the data by Pearson's chi-square test, cross analysi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correlation and intergroup relation.

The analyzed result of makeup factors by grotesque characteristics shown as Alexander McQueen fashion collection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eyebrow makeups have the most humor in grotesque characteristics and the next comes abnormality, mismatch, exaggeration & extreme. The eye makeups have the most exaggeration & extreme in grotesque characteristics and the next comes abnormality, humor, mismatch. The lip makeups have the most mismatch in it and the next comes abnormality, exaggeration & extreme, humor. The face makeups have the most humor and the next comes abnormality, exaggeration & extreme, abnormality.

Second, The eyebrow makeup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eriod - I, II, III. The period I has the most 12.9% humor, The period II has the most incongruity and also The period III has the most abnormality. After

cross analysis, significance according to group difference is $p > .05$ which means no periodical difference. So, the eyebrow makeups are created independently in the any each period.

The eye makeup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eriod - I, II, III. The period I has the most abnormality and the period II & III have the most exaggeration & extreme. After cross analysis, significance according to group difference is $p > .01$ which means periodical difference. So, the eye makeups have periodical relations.

The lip makeup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eriod. The period I, II, III all have the most mismatch. After cross analysis, significance according to group difference is $p > .05$ which means no periodical difference. So, the lip makeups are created independently in the any each period.

The face makeup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eriod. The period I, II, III all have the most humor. After cross analysis, significance according to group difference is $p < .05$ which means periodical difference. So, the face makeups have periodical relations.

Third, The analysis result of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to analyze correlation is that eyebrows and faces having all correlations, eyes having face and lips having eyebrows.

Synthetically McQueen collections have grotesque characteristics not only in costume but makeups. So by the relations make the uncertainty principal, makeups with grotesque characteristics create unlimited probabilities.